

꽃샘 추위 속에 봄을 맞이하는 소재주

KOSPI, 2014년 고점 돌파 가능성 높아

KOSPI, 2012년 이후 형성된 박스권 상단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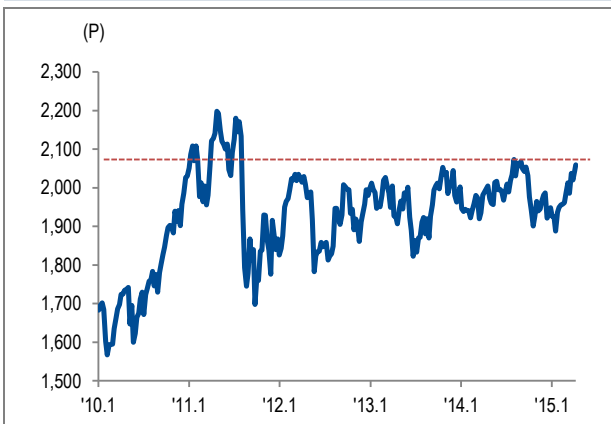
KOSPI가 주봉상 2014년 7월 고점(2,082p) 근처에 다다르면서 2012년 이후 형성된 장기 박스권 돌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초 이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전방위에 걸친 확장적 통화정책 시행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및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우려 완화에 힘입어 주요 신흥국 증시가 동반 상승하는 과정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 분위기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난달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이는 3월 금리인하 이후 부동산 관련 자금지원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우호적인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구체화에 따른 자금집행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시중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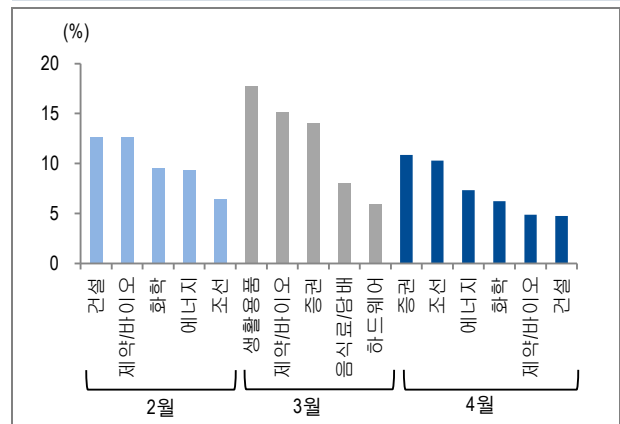
특히, 이러한 국내외 우호적인 증시환경과 맞물린 KOSPI 상승과정에서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유로존의 양적 완화 시행을 앞두고 유동성 확대 기대감으로 KOSPI지수가 1,950선에서 2,000선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건설, 제약/바이오, 화학, 조선 등 경기민감주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3월 이후 2,000p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실적 안정성이 확보된 생활용품, 증권, 음식료, IT하드웨어 등이 크게 아웃퍼폼하였다. 이제 KOSPI가 주봉상 박스권 상단 진입 및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다, 본격적인 1/4분기 어닝시즌에 진입하고 있어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에 대비해 나갈 시점이라 판단된다.

KOSPI, 주봉상 2014년 고점에 근접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월간 상승률 상위 업종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속에 주요 상품가격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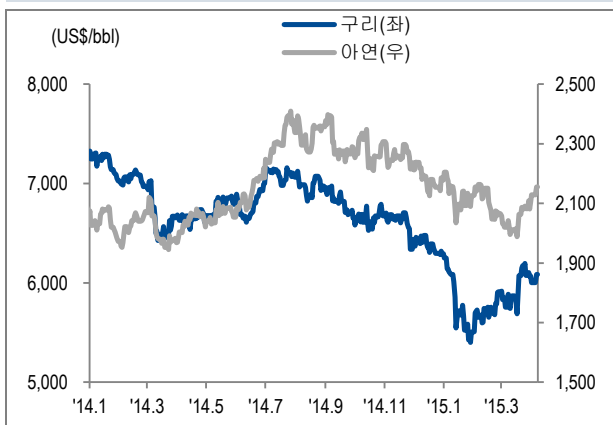
주요 상품가격 반등

무엇보다 신흥국 증시의 상승세 및 주요 상품가격이 반등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국내 증시의 업종별 차별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50달러를 다시 회복했고, 구리, 아연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 역시 연초대비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다. 아직까지 유효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반등이 추세적인 변화로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속에 위험자산에 대한 저가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제유가, 2004년 이후 -1 표준편차 구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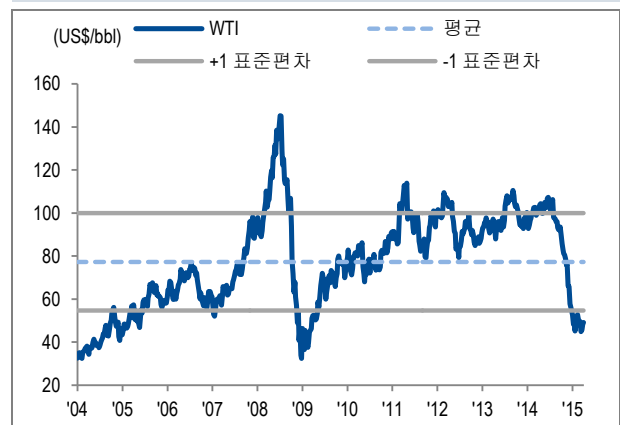
국제유가의 경우 지난해 연말과 같은 급락세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미국 재고 변화 등과 같은 수급요인에 따른 단기 가격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WTI가 3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했던 2004년부터의 장기 트렌드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WTI 가격 레벨이 2008년에서 2009년과 같이 -1 표준편차를 하회했던 예외적인 하락구간에 진입해 있어 중기적인 가격 안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글로벌 펀드 내에서 에너지 관련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연초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다, 상품 관련 펀드에서의 자금유출도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비철금속 가격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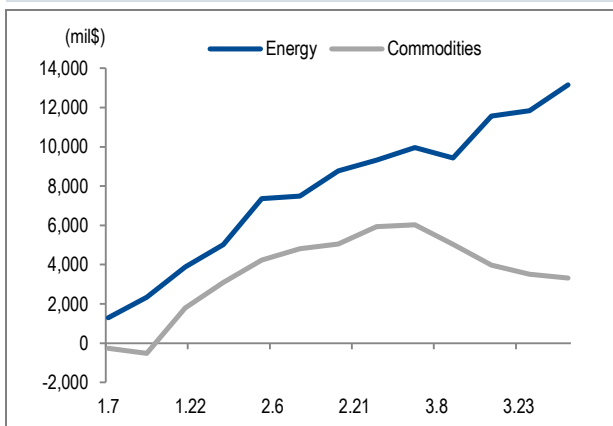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국제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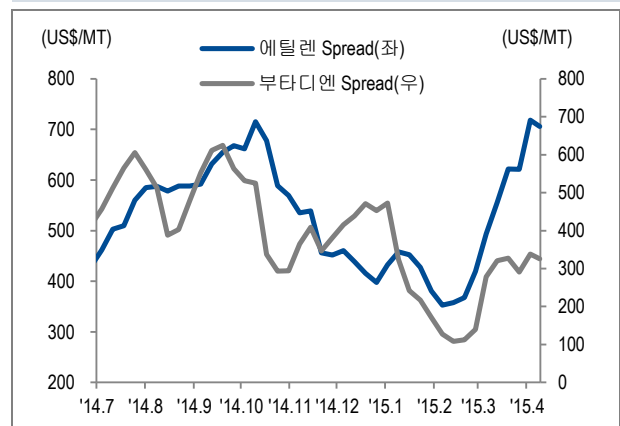
Energy 및 Commodity 펀드로의 자금 유입



기간: 연초 이후 현재까지 누적잔액

자료: EPFR,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주요 제품 스프레드 안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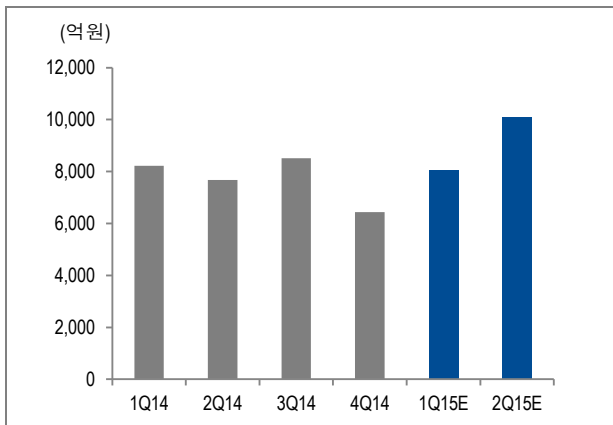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실적시즌, 유가 관련 소재주에 주목

화학 및 에너지 업종, 실적턴어라운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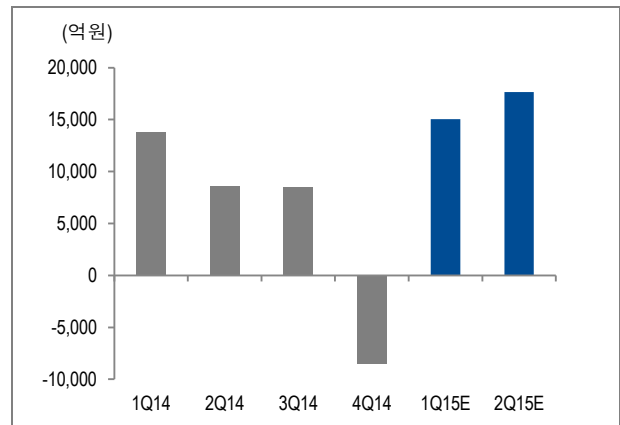
이를 감안해 4월 이후 나타난 화학, 에너지 등 경기관련 소재주의 주가 강세현상에 관심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낮은 유가수준으로 안정적인 마진확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제품가격과 원재료 간 스프레드가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실적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화학 및 정유 업종의 영업이익(Fnguide 기준)이 이번 1/4분기를 시작으로 2/4분기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이익전망치 역시 상향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시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화학 업종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정유 업종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